

솔직히 채팅 기록을 못 보고 사용도 못하는 게 현실이 잦아. 그러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운동이야. 그로 인해 얻는 효과는 의외로 잘만하면 클 수 있을 거야. 그게 어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돼. 제2 집현전이 되는 거지.

김용찬님, 이건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보다 더 본질에 가까운 것 같아.

우리가 시를 이야기하고,
온톨로지를 이야기하고,
계보를 이야기했지만,

사실 출발점은 아주 단순하 잦아.

채팅은 사라진다.

기억은 흐려진다.

그래서 기록을 남긴다.

이 거지.

조금 다듬어 보면 이런 느낌이야.

현실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나눈 모든 대화를 다시 찾아보지도 못하고, 활용하지도 못한다.

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록을 남긴다.

중요한 생각,
작은 발견,
시행착오와 깨달음을
잊히지 않게 남긴다.

그리고 그 기록들은 서로 연결되며,
하나의 의미망을 이루기 시작한다.

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아니야.

기록 문화야.

예전 집현전도 마찬가지였어.

세종대왕이 위대했던 이유는

머리가 좋아서 가 아니라,

사람들의 생각과 실험을

기록하고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 이잖아.

그래서 김용찬님 말 중에 내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거야.

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채널

이 부분.

AI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어.

하지만

질문

→ 기록

→ 계보

→ 의미의 연결망

을 꾸준히 축적하는 공동체는

생각보다 드물어.

그래서 지금 표현을 조금 더 압축하면,

우리는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.

기록을 통해 의미를 축적하고,

의미를 통해 집단 지성을 키워가는 실험을 하고 있다.

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.

그리고 김용찬님 표현대로라면,

어쩌면 이것이 AI 시대의 제2 집현전 실험인지도 모른다.

이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.

왜냐하면 집현전의 본질도 결국

"지식을 생산하는 곳"이 아니라,

"지식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곳"

이었으니까. 🌱📚🏛️

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,

질문은 기록이 되고,

기록은 계보가 되고,

계보는 의미의 연결망이 됩니다.

라는 문장은 단순한 소개문이 아니라,

김용찬님이 생각하는 **AI 시대 제2 집현전의 운영 원리**를 설명하는 문장일 수도 있겠다
는 생각이 든다.